

설명자료

배포일시	2020. 12. 11.(금) 17:00 (총 4매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수도권기상청 예보과	담당자	과장 박종찬 전문관 이동희
		전화번호	031-8025-5030

13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 많은 눈, 다음주 한파

- 13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 2~7cm 많은 눈
 - 눈길, 빙판길 교통안전과 시설물 피해 대비 철저!
- 눈 내린 후, 점차 기온 떨어져 14일부터 한파 주의



[12월 13일 오전 예상기압계 모식도]

- 수도권기상청(청장 김성균)은 13일(일)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에 많은 눈이 내린 후, 14(월)~15일(화)에 강추위가 예상된다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전망과 국민에 대한 당부의 목소리를 전했다.

[기압계 전망]

- 수도권기상청은 고도 약 5km 상공에서 -25°C 이하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다가오겠다고 하며, 이 찬 공기에 의해 눈 구름대가 만들어져 수도권에 영향을 주겠다고, 기온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.
- 13일은 서해북부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에 의해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수도권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눈이 내릴 것이라는 설명이다.
- 눈이 그친 13일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, 14~15일에는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.

[13일 새벽~오전 수도권 많은 눈]

- 서해북부해상의 저기압이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13일 새벽~오전에 수도권에 영향을 주겠다고 예상하였다.
- 특히,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구름대가 발달하는 만큼 수도권에는 2~7cm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.

<예상 적설(13일)>

- 서울·인천·경기도, 서해5도 : 2~7cm

- 수도권기상청은 눈이 그친 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쌓인 눈이 녹지 않고 얼어 빙판길이 될 수 있겠다며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사고,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.
- 다만, 수도권기상청 예보관은 “북쪽으로부터 유입되는 찬 공기의 이동속도가 느려질 경우 비가 먼저 내릴 가능성이 있고, 이 경우에는 지면이 젖어 눈이 예상보다 적게 쌓일 수 있으나 비가 도로에 얼어붙을 가능성은 더욱 커지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”고 설명했다.
- 또한, 수도권기상청 예보관은 “다음 주에는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가운데 일시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구름대가 자주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, 16일(수) 경에도 수도권에 다시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기상정보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”고 덧붙였다.

[추위 전망]

- 13일 오후부터 기온이 점차 낮아지면서 14일은 수도권의 아침 최저기온이 13일보다 5~10℃ 가량 급격히 내려가 한파특보가 발표되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,
- 이 기간(14~15일)에 수도권에는 영하 10℃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, 낮 최고 기온도 영하권을 보이면서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하였다.
 - 또한,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바람도 강하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7~10℃ 가량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고,
 - 다음 주에도 한파가 지속되면서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 관리와 비닐하우스 농작물의 냉해 피해에 대한 유의도 필요하다고 당부 하였다.

[강풍과 풍랑 전망]

- (강풍) 13일 낮부터 인천·경기서해안에는 바람이 35~50km/h(10~14m/s)로 강하게 불겠고,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25~35km/h(7~10m/s)로 강하게 불면서 14일까지 바람이 강하겠다고 예상하였다.
- (파도) 13일 오전에 서해중부먼바다, 낮에는 인천·경기앞바다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. 특히, 서해중부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2~4m로 높게 일겠고,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은 15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.
 - 또한, 서해중부해상은 눈 구름대가 발달하여 시정이 좋지 않은 만큼 해상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고 전하였다.